

現行 高等學校 漢文教科書에 나타난 ‘漢文 文法’에 관한 諸 實態 研究

許 連 球*

<국문초록>

본 논문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제시된 한문과 학교문법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새로운 한문과 교육과정 편성시 학교문법의 통일성을 전제로 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문과 학교문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7차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포함된 문법의 제반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문법용어의 혼동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문과 학교문법’은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중·고등학교에서 한문문장을 만들고 풀이하는 규칙이다. 학습자들은 문법을 배움으로써 문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여 풀이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기초한 10종 교과서의 문법관련 제 실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자의 짜임’은 6차 수준으로 육서(六書)를 자세하게 집필하기도 하였으며, 한자의 짜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교과서도 있다.

‘한자어의 짜임’은 7차 교육과정해설서 수준으로 설명한 교과서가 5종이며, 6차 수준으로 설명한 교과서가 5종으로 혼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장의 구조’도 6차와 7차 사이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다. 단문, 복합

문의 형태로 복잡하게 서술하기도 하며, 기본구조와 확장구조로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특이한 것은 일부 교과서는 똑같은 문장을 서로 다르게 분석하여 교사와 학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문장의 형식’을 보면 대체적으로 7차에 기준을 두고 있으나 1종의 교과서는 6차의 기준으로, 3종의 교과서는 또 다른 형식용어를 사용하여 집필하고 있다.

문법용어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품사의 명칭과 품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혼동되고 있으며, 동일한 한자의 품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며, 허자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위의 실태 분석결과 문법의 제 분야에 대한 통일성이 결여됨을 살필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한문과 학교문법교육이 방치되거나 퇴보하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문과 8차교육과정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한문과 학교문법에 관한 학자들 간의 학문적 합의를 통해 통일안을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교과서 집필에 반영되어야 한다. 통일성과 객관성을 지닌 문법을 통해 학습자들의 독해능력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한문과 학교문법, 문법교육의 실태, 교과서의 문법내용 분석, 품사용어의 혼란

目次

- I. 서론
- II. 한문과 학교문법의 개념과 필요성
- III. 교과서 문법의 제 실태 분석
- IV. 문법 용어의 혼란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I. 서론

중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은 크게 형식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식은 한자를 알아 문장을 풀이할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은 그 풀이된 문장을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문법은 형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 논문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그러나 최근 한문교육계는 전반적으로 형식면보다는 내용면의 전달을 중요시하고 있다. 교수학습방법에서도 내용의 전달에 초점을 맞출 뿐 문장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한 기본 도구가 되는 문법에 대한 것은 소홀히 다루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표는 교과학습을 통한 인간의 변화라는 대명제로 볼 때 내용의 중시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러나 학문의 일 분야를 이루는 한문교과에서 형식 없는 내용은 상상할 수도 없으므로, 문법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문과는 최초 영어권의 문법이론을 한문과에 적용하여 한문법의 틀을 만들었고, 국어문법의 용어를 대체적으로 차용하여 한문과 학교문법의 체계를 세워 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문법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 형태로 제시만 되었지, 학교문법이라는 틀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¹⁾에서는 똑같은 문법 상황에 대해 서로

1) 7차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는 총 10종이며, 한문

다른 문법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며, 문법을 잘못 분석한 예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사와 학생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문법내용이 나오면 간단하게 정리만 해주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은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나온 한문과 학교문법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새로운 한문과 교육과정 편성 시 한문과 학교문법의 제반 사항에 대한 통일을 전제로 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문과 학교문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7차 고등학교 한문교과서에 포함된 문법의 제반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문법용어의 혼동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漢文科 學校文法の 概念과 必要性

1. 한문과 학교문법의 개념과 범위

文法은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이다.²⁾ 모든 언어는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문적인 문법을 지니고 있다. 언어에 따라 분류하자면 영어문화권에서는 영문법이, 불어문화권에서는 불문법이 존재하며, 한자문화권에서는 한문법이 존재하고 있다. 한문법³⁾은 한자로 된 문장의 법칙이며 문장을 만들고 풀이하는 법칙이다.

學校文法은 학교에서 교수·학습되는 문법이다.⁴⁾ 다시 말하면 정규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문법을 말한다. 학교문법은 우리나라에서 정식 교과로 채택된 언어분야 諸科의 문법이다. 학교문법은 해당 분야의 전

고전 교과서는 1종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A(교학사), B(금성), C(대학서림), D(대한교과서), E(두산동아), F(새한), G(정진), H(중앙교육), I(지학사), J(천재교육), K(한문고전)로 표기한다.

2)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2283쪽.

3) 여기에서 말하는 한문법은 한문문장을 풀이하는 전문적인 문법을 말하며, 한문과 학교문법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6차 교육과정 해설(186쪽)'에서는 '한문문장이 언어로서 지니고 있는 일정한 규칙의 체계'를 '한문문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관규, 『학교문법론』, 도서출판 月印, 2003. 15쪽.

문적인 문법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문법이다. 주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교육용으로 쓰이므로 통일성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漢文科 學校文法은 한문과 교육과정에 의하여 중·고등학교에서 한문문장을 만들고 풀이하는 규칙이다. 한문교과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문법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문법을 지니고 있다.⁵⁾ 다만 다른 언어의 학교문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어 생활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다보니 여전히 국어문법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문이 한글이 아닌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이며, 국어와는 일정부분에서 다른 언어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국어과 학교문법과는 다른 한문과 학교문법이 있어야 한다.

한문과 학교문법의 범위는 문법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한문과 교육과정 내에서 가르치는 학교문법에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동안 한문법과 관련한 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법의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주로 형태론과 통사론으로 귀결된다. 형태론과 통사론적 입장에서 볼 때 한문과 학교문법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표 1> 독해력 신장을 위한 한문과 학교문법의 범위

| | |
|-----|------------|
| 한자 | 1. 한자의 짜임 |
| 한자어 | 2. 한자어의 짜임 |
| 한문 | 3. 문장의 구조 |
| 한문 | 4. 문장의 형식 |
| 한문 | 5. 허자의 쓰임 |

이 표는 독해력 신장 측면에서 작성한 한문과 학교문법의 범위표이다. 한문 문법의 내용영역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분

5) 고등학교 과정에서 국어과의 '문법'과 같은 독립적인 과목체계는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해설서에 문법의 일반적인 내용이 서술되어 있으며, 한문의 이론 분야로서 한문법이 존재하고 있다.

만을 학교문법에 꿰어 맞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한문과 학교문법에 서 다루어야 할 내용체계를 갖는다는 것에 의의를 삼고자 한다.

2. 독해력 신장을 위한 한문과 학교문법의 필요성

근래 들어 한문과 학교문법교육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면서 중고등학교 한문과에서의 문법교육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교육과정 해설서와 한문교과서의 문법사항이 이전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축소되어 기술되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문법과 관련된 사항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문법적 설명을 지양해야 한다는 7차 교육과정의 제한사항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과 학교문법은 여전히 필요하며 최소한의 형태이라도 교육과정 해설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이 문장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 학습요소이기 때문이다.

한문 문장을 풀이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⁶⁾

<표 2> 문장 풀이 과정

- | |
|--|
| (가) 한자의 뜻으로 유추하기 (나) 주어와 서술어 찾기 (다) 수식성분을 찾기 (라) 수식성분을 포함하여 완전한 문장 풀이하기 |
|--|

(가)는訓을 알아야 할 수 있는 내용이며, (나)와 (다)과정은 핵심 성

6) K출판사(148쪽)에는 문장풀이의 요령을 두 가지로 서술하였다. ① 문장의 구조를 통해 핵심성분을 파악한다. ② 다시 수식성분을 첨가한다.

분을 파악하는 것으로 문장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한문교과서에 현토가 한글로 나와 있으므로 (나)과정은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장구조분석이 끝나면 전체문장의 흐름에 따라 문장의 형식을 고려하면서 국어 문법의 어순에 맞도록 풀이를 한다. 문법을 알아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문법을 몰라도 의미는 통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다 명확하고 완벽한 문장으로 풀이하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한 것이다.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한문독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2) 교육과정 운영상 짧은 시간 내에 문장풀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미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극히 한정된 시간만으로 한문 문장을 지도하는 데는 교수 학습상 무리가 따를 수 있다.⁷⁾ 과거 서당식 교육이 이루어질 때 문장 풀이의 관건은 文理였다. 문리의 관건은 문장의 암기였고, 많은 문장의 암기는 새로운 문장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손쉽게 풀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 그러나 문리의 시대는 끝났다. 교육과정상 중요도 순에서 주요 교과에 밀려나 실제 수업 시 한문문장의 완벽한 독해를 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생기게 되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된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문장에 활용하는 것이다.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할 줄 알고 이를 풀이에 활용하는 것은 공식을 알고 대입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다.

3) 교과서에서 문법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교과서별로 다르게 표현된 문법용어와 구조분석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이나 해설서에 문법관련 내용을 최소로 하다보니 생겨난 병폐라고 할 수 있다. 별도로 한문법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7)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한문)』, 교육부, 2001. 15쪽.

한문과 학교교육과정의 상황에서, 만약 교육과정해설서에 좀더 규범적이고 통일적인 문법사항을 포함한다면 교과서 저자들이 쉽게 참고하고 통일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학생과 교사에게도 통일적인 내용으로 학습과 교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Ⅲ. 教科書 文法の 諸 實態 分析

1. 6, 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 포함된 문법내용 비교

교육과정 해설서는 한문과 학교문법의 준거가 된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포함된 문법사항의 기술범위에 따라 교과서 문법의 범위와 수준이 결정된다.

6차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문법관련 내용은 ‘(4) 한문과의 성격 및 특징, (5) 한문과의 목표, (6) 한문과의 내용, (7) 한문과의 방법, (8) 한문과의 평가’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문과 세부과목인 ‘한문Ⅰ, 한문Ⅱ’는 각 영역의 하위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반해 7차 한문과 교육과정은 ‘한문, 한문고전’이 분리되었으며, 하위 항목으로 ‘1. 성격, 2. 목표, 3. 내용, 4. 방법, 5.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⁸⁾

6차교육과정 해설서⁹⁾에는 (4) 한문과의 성격 및 특징부분에서 ‘나. 특징’에 ‘(가) 한문의 독해기능 신장’을 두어 ‘1) 한자의 짜임, 2) 한자어의 짜임, 3) 문장의 구조와 형식, 4) 허자의 쓰임’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다. 기대하는 학습 성과’에서는 ‘(1) 한자의 학습, (2) 한자어의 학습, (3) 문장 및 허자의 학습’이 제시되어 있다. 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위 내용 중 ‘나. 특징’ 부분이 총론부분인 ‘4. 한문과 교육의 특징’으로 옮겨져 있으며, ‘다. 기대하는 학습효과’는 ‘내용’에 복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6차에 비해 축소 및 요약적으로 서술되

8) 문법관련사항을 설명하기 위하여 일부분만 제시하였다.

9) 『6차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해설(한문Ⅰ, 한문Ⅱ)』, 교육부, 1995. 63~66쪽.

고 있다.

서술 순서도 6차에는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 '허자의 쓰임'순으로 문법이 설명되어 있으나, 7차에서는 '문장의 구조', '허자의 쓰임', '문장의 형식'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다음 표는 6차의 '한문과의 내용'과 7차의 '내용'에 포함된 문법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표 3> 6,7차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 문법항목 비교

| 범위 | 6차 | 7차 |
|---------|---|--|
| 한자의 짜임 | 상형, 지사, 형성, 회의, 전주, 가차 | 상형, 지사, 형성, 회의, 전주, 가차 |
| 한자어의 짜임 | (가) 주술관계 (나) 술목관계 (다) 술보관계 (라) 수식관계 (① 관형어+채언 ② 부사어+용언), (마) 병렬관계(① 대립관계 ② 대등관계 ③ 유사관계 ④ 첨어관계) | (가) 주술관계 (나) 술목관계 (다) 술보관계 (라) 수식관계 (마) 병렬관계 |
| 문장의 구조 | <문장의 기본구조와 확장구조> (나) 문장의 기본구조 ① 주술구조 ② 주술목구조 ③ 주술보구조 가) 주어를 돕는 경우(① 존재의 뜻을 나타내는 '有, 無, 在' 등이 주어를 돕는 경우 ② 결정의 뜻을 나타내는 '爲, 非' 등이 사용되어 주어를 돕는 경우 ③ 비교의 뜻을 나타내는 '使, 如, 若, 同, 猶' 등이 사용되어 주어를 돕는 경우 ④ '化, 成' 등이 사용되어 주어를 돕는 경우 나) 목적어를 보충하는 경우 ① 서술어가 변경이나 칭위(稱謂)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② 서술어가 인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다) 서술어를 보충·한정하는 경우 ① 보어가 장소나 출발점이 되는 경우 ② 형용사 '難, 易, | <문장의 기본구조> (가) 주술구조 (나) 주술목구조 (다) 주술보구조 (라) 주술목보구조 <문장의 확장구조> (가) 주술확장구조 (나) 주술목확장구조 (다) 주술보확장구조 |

| | | |
|-----------|---|--|
| | <p>多' 등이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 ③ 목적어의 앞이나 뒤에서 서술어를 보충, 한정하는 경우</p> <p>④ 주술목보구조</p> <p>(다) 문장의 확장구조</p> <p>① 주술확장구조</p> <p>② 주술목 확장구조</p> <p>③ 주술보 확장구조</p> <p>④ 주술목보 확장구조</p> <p>(라) 활용하기</p> <p>① 다른 구조와 비교하기</p> <p>② 같은 구조의 문장 반복하기</p> <p>③ 문장성분 대체하기</p> <p>(마) 복합문으로의 활용</p> <p><복합문의 구조></p> <p>(가) 병렬복합문</p> <p>(나) 주종복합문</p> <p>(다) 포유복합문</p> <p>(라) 혼합복합문</p> | |
| 문장의 형식 | <p>(가) 평서형</p> <p>(나) 부정형 ① 기본부정형 ② 이중부정형 ③ 부분부정형 ④ 전체부정형</p> <p>(다) 의문형 ① 의문사만 쓰인 경우 ② 의문어기 사만 쓰인 경우 ③ 의문사와 종결사가 호응된 경우</p> <p>(라) 반어형</p> <p>① 어기사만 문말에 쓰인 경우 ② 의문사만 쓰 인 경우 ③ 의문사와 호응된 경우 ④ '不亦~ 乎'</p> <p>(마) 비교형</p> <p>① '若, 如, 猶, 不如(不若), 莫如(莫若)'등이 서술 어로 쓰인 경우 ② 전치사 '於, 乎' 등이 형용</p> | <p>(가) 평서형</p> <p>(나) 부정형</p> <p>(다) 의문형</p> <p>(라) 반어형</p> <p>(마) 비교형</p> <p>(바) 가정형</p> <p>(사) 한정형</p> <p>(아) 사동형</p> <p>(자) 피동형</p> <p>(차) 금지형</p> <p>(카) 감탄형</p> |

| | | |
|-----------|---|---|
| | <p>사 뒤에서 비교의 뜻으로 쓰인 경우 ③ 호응구가 쓰여 비교·선택의 뜻을 나타낸 경우</p> <p>(바) 가정형 ① 문두에 접속사가 쓰인 경우 ② 문장 가운데 '則'이 쓰인 경우 ③ 접속사가 호응된 경우 ④ 부정어가 거듭 쓰인 경우</p> <p>(사) 한정형</p> <p>① 한정부사만 쓰인 경우</p> <p>② 한정어기사만 쓰인 경우</p> <p>③ 한정부사와 한정어기사가 호응되어 쓰인 경우</p> <p>(아) 사동형</p> <p>(자) 피동형</p> <p>(차) 금지형</p> <p>(카) 감탄형</p> <p>(타) 역양형</p> | |
| 허자의 쓰임 | <p>(가) 전치사</p> <p>① 於, 于, 乎 ② 以 (㉔ '以+명사류'가 부사어로 쓰일 경우 ㉕ 以 A 爲 B ㉖ 以爲 B) ③ 自, 由, 從 ④ 與 ⑤ 爲</p> <p>(나) 접속사</p> <p>① 병렬접속사(㉗ 대등 병렬 접속사 ㉘ 겸중 병렬 접속사) ② 선택접속사 ③ 순접접속사 ④ 역접접속사 ⑤ 인과접속사 ⑥ 가설접속사 ⑦ 양보접속사</p> <p>(다) 어기사</p> <p>① 어두어기사 ② 어중어기사 ③ 어말어기사 (㉙ 단정어기사 ㉚ 한정어기사 ㉛ 의문반어어 기사 ㉜ 감탄어기사 ㉝ 제동어기사 ㉞ 기타의 어기사)</p> <p>(라) 감탄사</p> | <p>(가) 전치사</p> <p>1) 於, 于, 乎</p> <p>2) 以</p> <p>3) 自, 由, 從</p> <p>(나) 접속사</p> <p>1) 且, 與, 及 2) 而 3) 則</p> <p>(다) 종결어기사</p> <p>1) 也·矣·也已 (단정)</p> <p>2) 已·而已·而已矣·耳(한정)</p> <p>3) 也·乎·與·哉 (의문, 반어)</p> <p>4) 哉·乎·夫·矣·也(감탄)</p> <p>(라) 기타의 허자</p> <p>1) 之 2) 其 3) 所 4) 者</p> |

위 표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자의 짜임 : 6차에서는 육서를 기본형태[창조원리], 복합형태[결합원리], 응용형태[전용원리]로 나누어 설명한 후 세부 내용을 서술하였고, 형성을 설명하면서 意符, 形符, 聲符[音符]로 나누었으며, 형성자의 결합방식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7차에서는 육서의 분류를 피하고 육서의 세부내용만을 서술하였으며, 형성에 대한 결합방식을 제외하였다. 전주를 설명하면서 3가지 학설을 제시하여 전주의 논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었다.

한자어의 짜임 : 6차에서는 짜임을 도식으로 설명하였으며, 병렬관계를 4개(대등, 대립, 유사, 첩어)로 하위분류하였다. 그러나 7차에서는 짜임을 도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술보관계의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보어'라는 용어가 한국어나 영어와 다르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으며, 병렬관계의 하위분류가 없다.

문장의 구조 : 6차에서는 문장의 구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서술되었고, 각 항목마다 2~5개 정도의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였으며, '활용하기'와 '복합문으로의 활용'에서는 문장의 구조를 익히기 위해 비교, 반복, 대체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문장을 활용하고 있다. 복합문의 구조를 4개(병렬, 주종, 포유, 혼합)의 하위항목으로 구성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7차에서는 기본구조와 확장구조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서술하였으며 복합문의 구조는 빠져 있다.

문장의 형식 : 6차에는 12개 문형을 제시하였으며, 문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문장이 상당히 많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7차에서는 6차의 억양형이 제외되고 11개 문형이 제시되었다.

허자의 쓰임 : 6차에서는 허자의 쓰임을 세분화하여 기술하였다. 또 접속사를 7가지로 세분화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러나 7차에서는

쓰임을 간단 명료화하였으며, 6차의 ‘어기사’에 포함되었던 부분 중 ‘종결어기사’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였다.

2. 학습목표로 본 문법 비중

7차 한문 교과서의 문법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학습목표에 문법제재를 얼마나 포함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단원, 소단원 별 학습목표 중 문법관련 사항의 비중¹⁰⁾을 출판사 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 A | B | C ¹¹⁾ | D | E | F | G ¹²⁾ | H | I | J | K |
|------|--------------|--------------|------------------|---------------|--------------|---------------|------------------|--------------|--------------|---------------|--------------|
| 대단원a | 2/40 5% | 13/44 30% | 0/0 0% | 21/60 35% | 21/53 40% | 14/58 24% | 6/51 12% | 26/67 39% | 11/44 25% | 37/65 57% | 10/46 22% |
| 대단원b | 2/40 5% | 9/44 20% | 0/0 0% | 12/60 20% | 16/53 30% | 11/58 19% | 6/51 12% | 26/67 39% | 7/44 16% | 21/65 32% | 7/46 15% |
| 소단원a | 41/80 51% | 23/80 29% | 0/32 0% | 55/117 47% | 32/78 41% | 28/102 27% | 18/84 21% | 11/80 14% | 18/76 24% | 65/138 47% | 28/72 39% |
| 소단원b | 17/80 21% | 18/80 23% | 0/32 0% | 36/117 22% | 20/78 26% | 21/102 21% | 13/84 15% | 9/80 11% | 4/76 5% | 31/138 22% | 18/72 25% |

<표 4> 문법관련 학습목표의 비중

※문법관련 학습목표의 수/전체 학습목표의 수

10) ‘대단원 a, 소단원 a’는 앞에서 제시한 문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단원 b, 소단원 b’는 ‘허자의 쓰임’을 제외한 통계이다.

11) C출판사에는 도입부분에 학습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부록편에 나온 ‘교수학습계획’을 참고하였다. 교수학습계획의 대단원 부분은 ‘문장의 형식’과 ‘허자의 쓰임’만 나와 있어서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소단원 부분은 다른 교과서와 동일하게 집계하였다. 입문편은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2) G출판사의 대단원 I은 학습목표가 제시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하였

위 표는 학습목표 중 문법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추출하여 통계를 낸 것이다. 학습목표는 학생이 교과과정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학습하는 핵심과제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의 비중은 교과내용 전달의 비중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한문과의 목표에서 문장 독해와 관련된 문법의 비중이 20% 정도라고 본다면¹³⁾, 문법 전 범위를 통계한 ‘대단원a’와 ‘소단원a’의 비율이 30%~50%정도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문문법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한자의 짜임, 한자어의 짜임, 문장의 구조, 문장의 형식’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 ‘대단원 b’, ‘소단원 b’의 비율이 대부분 20%를 상회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문법사항에 대한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C출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들은 여전히 문법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6,7차 교육과정해설서를 통해 문법사항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내용에 비하면, 학습목표에 있어서는 문법관련 사항의 비중이 높다고 하겠다.

3. 문법 내용별 실태 분석

10종 한문교과서와 1종의 한문고전교과서에서는 앞서 제시한 문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하고 있다. 이중에 문법에 관한 기본 사항을 대단원으로 둔 교과서는 A, G, H, J출판사이며, B, D, E, F, I출판사는 단원 앞에 문법에 관한 기본 사항은 없으나 소단원을 통해 문법을 다루고 있다. C출판사는 문장의 형식을 제외하고는 문법사항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K출판사는 문장의 구조부터 나온다.

1) 한자의 짜임

六書에 근거하여 한자의 짜임을 설명한 교과서는 8종이었다. A, D,

다.

13) 7차 교육과정 한문과의 목표 5가지 중 ‘다. 한문을 독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문법과 관련된 목표로 보았다.

H, I, J출판사는 육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였으며, 주로 앞단원에서 본문내용해설부분에 해당 소단원의 신출한자에 대하여 한자의 짜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G출판사는 6차 교육과정 해설서 수준 정도로 육서를 매우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B출판사와 F출판사는 전주와 가차를 설명하지 않았다. C출판사와 E출판사는 한자의 짜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B출판사는 파자를 이용하여 한자의 짜임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한자의 짜임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영역 중 한자영역의 소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 하에서는 중학교과정에서 한문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은 주로 2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이처럼 한자의 짜임(육서)은 교육과정의 내용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 고등학교에서 처음 한문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한자의 생성과정을 통해 한자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에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한자어의 짜임

7차 한문교과서에 포함된 한자어의 짜임에 관한 내용은 아래 표로 요약할 수 있다.

<표 5> 한자어의 짜임 포함 비교

| | 6차 교육 과정 해설 | 7차 교육 과정 해설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
| 수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술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술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병렬 | | ○ | ○ | ○ | | | ○ | | | | ○ | ○ | |
| 병 렬 | 대립 | ○ | | | | ○ | | ○ | ○ | ○ | ○ | | |
| | 대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사 | ○ | | | ○ | | ○ | | ○ | ○ | ○ | | | |
| 첩어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이 표를 통해 보면 대체적으로 6차와 7차 교육과정 해설서에 기술된 한자어의 짜임을 기술한 교과서가 동일한 비율임을 알 수 있다. 7차 교육과정 해설서와 같이 병렬을 세분화하지 않은 교과서는 A출판사와 E, J출판사이며, B출판사와 I출판사는 병렬을 별도로 하위분류하지 않고 유사와 대립을 넣고 있다. 또, B출판사는 접사의 사용을 포함하였고, G출판사는 결합관계와 융합관계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기타로 첩어관계와 허실관계를 제시하였다. C출판사에서는 학습평가문항에 단 한차례 한자어의 구조를 묻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짜임에 관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K출판사는 문장의 구조부터 기술이 되어 한자어의 짜임은 빠져있다. 국어식 한자어의 짜임을 설명한 교과서는 B, F, I, D, H, I출판사 등이다.

다음은 한자의 짜임을 기술하면서 혼동이나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짜임을 분석할 때 교과서마다 짜임분석은 보통 ‘--관계’로 표현한다. 이러한 관계가 반복(문장이 이어지는 형식)되면 대체적으로 ‘주술+주술(天崩地壞:I 21쪽)’, ‘술목+술보(轉禍爲福:E 19쪽)’ 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錦衣還鄉(B 36쪽)’을 분석하면서 ‘술보확장구조’로 분석하였고, ‘大器晚成(F 30쪽, A 29쪽, I 37쪽, E 18쪽, B 40쪽)’은 수식관계의 도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주술관계’로 파악하였다. 아마도 수식을 포함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주술관계라는 의미로 파악되며 짜임을 설명하기가 모호해서 나온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교육과정해설서에 한자어의 짜임을 주로 2자에 국한하여 설명하다 보니 4자이상이었을 때는 혼동된 것으로 판단된다.

A출판사(23쪽)에는 한자어의 짜임에서 ‘墨 || 守’로 도식을 하고 있다. 墨子守城의 개념을 갖고서 분석을 한 듯하다. 그런데 바로 아래 ‘杞

憂’는 수식관계로 보고 있다. 이것도 杞人之憂의 개념으로 수식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오른쪽 설명에는 杞人憂天의 준말이라고 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이라면 ‘墨守’도 ‘墨翟之守’로 수식으로 볼 수도 있다. 또, B출판사(32쪽)에는 국어식 한자어의 짜임을 설명하면서 ‘汚染 | 防止, 環境 | 保存’으로 파악하여 술목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식관계로 보아도 무방하다. 술목이나 주술로도 설명되면 수식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국어식 한자어를 굳이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2자이상의 문장의 구조가 형성되는 성어에 대한 짜임을 분석할 때와 조어가 된 성어의 짜임을 분석할 때 혼동과 오류가 남을 알 수 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분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문장의 구조

문장의 구조에 대한 기술범위는 대체적으로 7차교육과정 해설서 수준정도로 기본구조와 확장구조만 기술한 교과서가 J, B, D, E, F출판사 등이었으며, 6차 수준으로 기술한 교과서는 G, A, I, H출판사 등이었다. K출판사는 상당히 심층적인 구조를 다루고 있다. F, J출판사는 소단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반면에, B, D, G, H, K출판사는 매단원 문장의 구조를 기술하고 있다. C출판사는 문장의 구조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또, B출판사는 확장구조를 기본구조로만 설명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기본구조와 확장구조를 기본적인 문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고, 복합문에 대하여는 A출판사에 복합문을 대신하여 ‘이어진 문장’의 개념을, G출판사에서는 ‘포유복합문’을, H출판사에는 ‘복합문(병렬, 주종, 포유)’을, I출판사에는 ‘혼합복합문’을, K출판사에는 ‘병렬문, 인과문, 포유문’이 기술되고 있다. 6차에서 4종의 복합문으로 나누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외되었다.

B출판사와 G출판사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보어의 개념에

대해 기술을 해 놓았다. B출판사(184쪽)에는 보어의 개념을 ‘서술어 다음에 나타난 명사가 우리말로 풀이하여 ‘을,를’이 붙는 목적어가 아니라면 모두 보어로 처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G출판사(38쪽)에는 보어로 보는 경우의 예가 나오는데, 1) 有, 無 서술어 뒤의 말 : 有口無言 2) 於(=于,乎)+명사 : 良藥苦於口 3) 기타 서술어 뒤에서 서술어의 상태를 보충해 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다.

다음은 문장의 구조를 기술하면서 혼동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 | | | |
|-------------------|----------|-------|
| ① 群臣 不聽 | (A 65쪽) | 주술구조 |
| ② 重根 立 / 露軍之背後 | (B 164쪽) | 주술보구조 |
| ③ 金正浩 自號 / 古山子 | (B 184쪽) | 주술보구조 |

①~③ 문장은 수식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구조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 | | |
|---------------------|----------|----------|
| ④ 孔子 問 禮 / 於老子 | (B 160쪽) | 주술목보확장구조 |
| ⑤ 百結先生 不知 何許人 | (D 185쪽) | 주술목확장구조 |
| ⑥ 諸山 皆發源 / 於白頭山 | (H 140쪽) | 주술보확장구조 |

④~⑥은 다소 혼동을 주는 구조 분석이다. 우선 ④는 孔子와 老子를 수식어가 포함된 확장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⑤는 百結이 先生을 꾸미는 수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¹⁴⁾ ⑥에서도 ‘發源’의 도식에서 發이 源을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인명이나 지명의 경우에는 주로 하나의 고유명사로 보지만 위의 경우는 교과서마다 상당히 혼란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 | | | |
|---------------------|---------|--------|
| ⑦ 智者 成 之 / 於順時 | (H 32쪽) | 주술목보구조 |
|---------------------|---------|--------|

14) A출판사(95쪽)에는 ‘金先生 || 訪 | 家’로 주술목구조로 보고 있다. H출판사(194쪽)에도 ‘金先生 || 善 | 談笑’를 주술목구조로 분석하고 있다.

- | | | |
|--------------------|----------|-----------------------|
| ⑧ 夫虎之所以能服狗者 爪牙也 | (B 204쪽) | 주술구조 |
| ⑨ 讀書 起家之本 | (H 68쪽) | 주술확장구조 |
| ⑩ 一日之狗+不知+畏虎 | (I 56쪽) | 주술목구조 |
| ⑪ 志 / 清 禍難 | (B 152쪽) | 술보구조 |
| ⑫ 恐 [群臣 不聽] | (A 65쪽) | 주술확장구조 ¹⁵⁾ |

⑦~⑫는 6차에서 포유복합문으로 파악하였던 내용을 기본구조나 확장구조로 보는 혼동사례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복합문의 개념을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혼동사례이다.

- | | | |
|-----------------------|----------|--------|
| ⑬ 後人之戒輕薄子弟者 必舉李公 以爲則云 | (G 77쪽) | 포유복합문 |
| ⑭ '非/(以變化神異) 眩惑 衆目' | (A 233쪽) | 이어진 문장 |

⑬~⑭는 6차 복합문에 의해 분석한다면, ⑬은 주어가 절이 되었고 뒤 문장은 이어져 있으므로 혼합복합문이 되어야 하며, ⑭는 복합문의 형식을 국어의 '이어진 문장'을 차용하였으나, 이어진 문장이 아니며, 오히려 6차의 포유복합문이 더 적절하다.

이처럼 문장의 구조에서 혼동사항은 먼저 기본구조와 확장구조를 구분할 때 수식어를 어느 수준까지 볼 것 인지였다. 이것은 한문문장풀이를 할 때 자주 혼동되는 내용인데, 문장을 풀이할 때 한자어를 하나의 명사로 보느냐 아니면 다시 세부적으로 분석하느냐의 문제이다. 적절한 논의로 통일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복합문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다. 6차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복합문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7차에서는 한문수업의 저해요소는 이유로 복합문을 모두 삭제했다. 이 때문에 교과서의 기술이 혼란스럽게 되었으며, 이왕 포함할 것이라면 통일된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문 문장은 다른 언어의 문장과 다른 독특한 구조가 있으므로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여 교육과정 해설서에 포함시키는

15) 술목확장구조의 오류이다.

것이 혼란스러운 문법분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즉, 복합문과 겹문장, 포유문장과 안은문장, 병렬복합문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주종복합문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대한 적절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정립된 이론이 교육과정 해설서에 최소한의 형태로라도 포함되어야 한다.

4) 문장의 형식

교과서에서 사용된 문장의 형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문장의 형식 포함 비교

| | 6차 교육 과정 해설 | 7차 교육 과정 해설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
| 평서형 | ○ | ○ | ○ | ○ | ○ ¹⁶⁾ | | ○ | ○ | ○ | ○ | ○ | ○ | ○ |
| 부정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문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어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교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정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정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동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동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금지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탄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령형 | | | | ○ | | | | | | | | | ○ |
| 추측형 | | | | ○ | | | | | | | | | |
| 긍정형 | | | | | | ○ | | | | | | | |
| 억양형 | ○ | | | | | | ○ | | | | | | |
| 원망형 | | | | | | | | | | | | ○ | |

위 표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된 문장의 형식을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1개 유형 외에 K출판사에는 명령형(160쪽), B출판사에는 추측형(196쪽), D출판사에는 긍정형(145쪽), E출

16) '평서문(29쪽)을 부정문과 구별하여 '긍정문'이라고도 한다.'고 하여 같은 개념으로 보았다.

판사에는 억양형(155쪽), J출판사에는 원망형(52쪽, 184쪽) 등을 문장의 형식에 포함하고 있으며, F출판사의 경우는 8가지의 형식만 교과서에 기술하고 있다.

문장의 형식을 기술하면서 나타난 오류로는 두 가지 형식이 공존할 수 있으나 한가지만을 기술한 경우를 들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부정형이면서 가정형이거나, 비교형이면서 반어형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한 가지 형식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문장을 분류함에 있어서 1개의 형식만을 기술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파악되며, 문장은 어떻게 분류하느냐¹⁷⁾에 따라 여러 가지 문장의 형식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의 형식을 모두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¹⁸⁾

5) 허자의 쓰임

한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독해하기 위해서는 허자의 용법을 잘 알아야 한다. 허자는 말과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주로 나타내는 글자로, 대체적으로 ‘접속사, 개사, 어조사, 감탄사’등이 이에 포함된다. 다양하게 쓰이는 허자의 용법을 잘 알고 문장 독해를 한다면 시간과 노력의 소모를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한문교과서 10종과 한문고전 1종 교과서 모두가 다양한 형태로 허자의 용법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A출판사와 B, F, G출판사는 ‘허자의 쓰임’을 통해, C출판사는 ‘허사의 쓰임’을 통해, D, H, J, I, E, K출판사는 ‘한자의 쓰임’이나 “○’의 쓰임’으로 허자를 표현하였다.

B출판사는 허자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실사를 허자에 포함하는 오

17) 金崇浩는 ‘「학교문법을 위한 문장 분류의 문법적 이해」(한문교육연구, 제17호)’에서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判斷文, 敍述文, 描寫文으로, 행위의 주체에 따라 使動文, 被動文, 主動文으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의향에 따라 平敍文, 疑問文, 命令文, 感歎文으로, 화자의 심리적 태도에 따라 推測文, 假定文, 怨望文으로 분류하였다. 기타사항으로 명제 또는 동작의 진위에 따라 肯定文, 否定文으로, 서술의 범위에 따라 限定文, 수사법에 따라 反語文, 比較文, 漸層文 등으로 나누고 있다.

18) G출판사(60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라고 기술하였다.

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 언급하도록 하겠다. 허자라는 용어를 전혀 쓰지 않은 교과서는 J출판사이며, 대단원의 목표에만 허자라는 용어가 쓰인 교과서는 D출판사¹⁹⁾와 E, H, I출판사 등이었다. 아마도 ‘허자’의 개념에서 오는 광의의 뜻을 고려한 듯하다. 또 부록에 허자의 쓰임을 별도로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는 B, G, K출판사 등이었다.

4. 교과서 문법 평가문항의 실태

6차 교과서는 각 단원별 학습평가 문항에서 문법문항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7차에는 문항의 유형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문법문항비중이 많이 줄었다. 문법문항의 대부분은 문장의 형식과 허자의 쓰임을 묻는 문항이 많았으며, 짜임분석이나 구조분석은 극히 드물었다. 문법문항이 많은 교과서로는 B, D, G출판사 등이었으며, 특히 문법용어가 많이 사용된 교과서는 G출판사이었다. C출판사는 학습목표에서만 아니라, 문법용어와 문법문항이 가장 적게 포함되어 있었다.

출판사별 평가문항의 문법제재를 단원별로 살펴보면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7> 출판사별 문법문항에 포함된 문법제재

| 출판사 | 문법제재 |
|------------------|--|
| A ²⁰⁾ | 한자의 짜임(소단원 1,2) 문장의 형식(소단원 4,10) 한문의 짜임(소단원 18) 허자의 쓰임(소단원 5,9,11,15,16,17) |
| B | 한자어의 짜임(대단원 ²¹⁾ I, II, 소단원2) 문장의 구조(대단원 III, VII, VIII, IX, X 소단원 10,12,26,31,32,33,34,36,39) 문장의 형식(대단원 IV, V, VII, VIII, IX, X 소단원 13,14,15,16,23,24,25,29,38,40) |

19) 대단원 단원정리 부분(47쪽)에 단 한번 ‘한자(허자)의 쓰임’이라고 표현하여 허자를 한번 들어내었다.

| | |
|---|--|
| | <p>허자의 쓰임(대단원 Ⅱ,Ⅲ,Ⅳ,Ⅵ,Ⅶ,Ⅷ,Ⅸ,X 소단원 11,23,24,26,27,30,31,33,34, 35,37, 39, 40)</p> |
| C | <p>한자어의 구조(소단원 12) 문장의 형식(소단원 3,4,17,24) 허자의 쓰임(소단원 2,9,10)</p> |
| D | <p>한자어의 짜임(대단원 I, 소단원 2) 문장의 구조(대단원 Ⅱ,Ⅲ,Ⅵ,Ⅶ 소단원 5,8,9,11,17,21,28) 문장의 형식(대단원 Ⅱ,Ⅳ,Ⅵ,Ⅶ,Ⅸ 소단원 7,9,10,12,13,14,15,24,26,31,33,38) 허자의 쓰임(대단원 V,Ⅵ,Ⅶ,Ⅷ,XI 소단원 5,8,10,11,13,14,21,22,24,25,27, 28, 30, 31,32,33,34,35,36,38)</p> |
| E | <p>문장의 형식(대단원 Ⅲ,Ⅳ,Ⅶ,Ⅸ,X 소단원 10,30,32,36) 허자의 쓰임(대단원 Ⅳ,Ⅸ 소단원 7,9,12,13,14,16,21,22,26,27,31,33)</p> |
| F | <p>한자의 짜임(소단원 2,3) 한자어의 짜임(소단원 6) 문장의 구조(소단원 10) 문장의 형식(소단원 13,28,31) 허자의 쓰임(소단원 12,14,15,27,33,34,35)</p> |
| G | <p>문장의 구조(Ⅱ-1,3 Ⅲ-2 Ⅳ-2,3,4 Ⅵ-2 Ⅶ-2,3 Ⅷ-3) 문장의 형식(Ⅲ-3,4, Ⅳ-1,2 Ⅶ-3) 허자의 쓰임(Ⅱ-1,2 Ⅲ-1,3,4 Ⅳ-3 Ⅵ-2 Ⅷ-2, XI-2)</p> |
| H | <p>한자어의 짜임(대단원 I,Ⅱ,Ⅳ 소단원 3,4,29) 문장의 구조(대단원 Ⅱ,Ⅳ,Ⅵ,Ⅶ,Ⅸ,X,XI,XII 소단원 5,10,11,32) 문장의 형식(대단원 Ⅱ,Ⅵ,Ⅶ,Ⅷ,Ⅸ,X,XI,XII 소단원 6,7,8,9,12,16,17,19, 21,24,26,29,34,37,39,40) 허자의 쓰임(대단원 Ⅲ,Ⅶ,Ⅸ,XI,XII 소단원 6,18,20,25,28,33)</p> |

| | |
|---|--|
| I | 성어의 짜임(소단원 4) 문장의 구조(소단원 17,27) 문장의 형식(소단원 15,17,23,30,31,34) 허자의 쓰임(소단원 10,13,14,16,22,24,26,29,31,34,35,37) |
| J | 문장의 형식(대단원 I,Ⅲ,V,Ⅶ,X,Ⅺ,Ⅻ 소단원 2,7,12,13,15,18,37) 허자의 쓰임(대단원 Ⅳ,Ⅵ,Ⅸ,X 소단원 8,9,14,15,16,17,19,29,30,31,33,34, 36,40) |
| K | 문장의 구조(대단원 Ⅲ,Ⅳ,V 소단원 1,2,4,5,6,7,9,10,12,13,15,16,17,18, 26,27,32,34,36) 문장의 형식(대단원 Ⅱ,Ⅳ,V,Ⅶ,Ⅷ 소단원 5,7,8,14,19,24,25,28,31,33,35,36) 허자의 쓰임(대단원 I,Ⅱ,Ⅲ,Ⅳ,V,Ⅶ,Ⅷ 소단원 2,7,10,11,14,15,16,17,18,26,27,29,30,32,35) |

다음 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과서별로 문법관련 문항유형 중 지나치게 도식화하거나 문법만을 위한 문항유형을 추출하여 모아 놓았다.

<표 8> 문법분야 평가유형

| |
|--|
| ○ 문장의 구조를 도식화하기(B 대단원Ⅲ,소단원 12,34,36, D 소단원 17(시구에 문장구조 표시), G Ⅲ-2,K-소단원 2,16,36) |
| ○ 문장의 기본 구조를 확장구조로 배열하기(D 소단원 5, F 소단원 10) |
| ○ 문장의 주어, 서술어, 보어 찾기(D 대단원 Ⅵ,Ⅶ, 소단원 5,9, F 소단원 29, G Ⅱ-3,Ⅶ-2, Ⅷ-3, H 대단원 Ⅱ, K 소단원 12,15) |
| ○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글자 찾기(G Ⅲ-4, H 소단원 15,30) |
| ○ 다양한 문장형식으로 바꾸어 보기(J 소단원 2) |
| ○ 다양한 구조의 문장으로 바꾸어 보기(K 소단원 9,26,32) |

20) 심화학습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21) 대단원은 대단원의 학습평가문항을 말한다.

- 문장 속에 포함된 품사 찾기(G IV-2, VIII-3)
- 한글 문장을 한문 문장으로 바꾸기(J 대단원 I, II 소단원 10, K 대단원 V, 소단원 4,7,12,13)

위 표에 나타난 문항의 유형들을 보면 구조를 알고 있는지, 품사를 알고 있는지, 문장의 형식을 알고 있는지, 문장을 다양한 구조와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지를 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항 유형은 한문 문법의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게 할 소지가 많다. 단순한 구조의 도식이나 문장의 형식을 유도하는 문항, 품사를 알아내는 문항 등은 좀 더 쉽게 문장의 구조와 형식을 알아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IV. 文法 用語의 混亂

1. 품사용어

한문과 학교문법에서 품사문제는 그동안 여러 번 논의를 해왔다. 아직까지 몇 가지 점에서 통일이 되지 않다 보니, 여전히 한문교과서에는 다양한 형태의 품사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슷한 문장 속에 쓰인 똑같은 한자를 서로 다르게 명명하는 것으로 인해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모두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7차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품사용어 사용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출판사별 품사용어 총괄표

| 출판사 | 품사 사용의 예 | *()는 쪽수를 나타냄 |
|-----|--|---------------|
| A | 也,矣,焉- 어조사(45), 也,耶-종결 어조사(65), 以-어조사(81), 及-접속어(143), 則-어조사(143), 我-1인칭 대명사(149), 矣,乎,哉,兮-어조사(153), 且-발어사(167), 斯-종결 어조사(185), 焉-종결 어조사(191), 인칭대명사의 분류(211), 夫-발어사(227), 也已-종결 어조사(245), | |

| | |
|---|---|
| B | <p>多様化에서 化-접사(24), 於,而,之-허자(40), 爲,是,如-허자(44), 也,於,而,之-허자(52), 莫~於~-허자(56), 以,之-허자(60), 以,者-허자(64), 之-개사(67), 以-개사,접속사(67), 用,得,既,不-허자(72), 欲,豈~乎,厥,寧-허자(76), 焉,不,若-허자(80), 可以,則,乎,於,爲~所,令-허자(84), 以爲,而-허자(112), 者,其,自,矣,所,而-허자(116), 以,與,乃,不若,諸-허자(120), 方,何所,以,而-허자(124) 可以,乃,遣,謂之-허자(132), 曰-허자(136), 謂之,以,爲-허자(140), 爲,自,以-허자(144), 於,寧,以,乃-허자(152), 諸,於,而,已,不可,當-허자(156), 可爲,而,猶,焉,乃-허자(160), 也,大抵,直,還-허자(164), 乎,與,所,不得,耳,以爲-허자(172), 自,使,未,以-허자(176), 其,以,或,因此-허자(180), 自,於,能,大抵,爲,卽-허자(184), 也者,焉-허자(192), 矣,所-허자(196), 猶,其~者-허자(200), 所以~者,(以)~也,於,矣-허자(204)</p> |
| C | <p>矣,已,也-종결사(29), 而-허사(29), 時-부사(37), 不,非,未,無,莫-부정사(40), 之-허사(40), 遣-사역동사(45), 乃-허사(62), 自-허사(90), 以-허사(110), 則-허사(125), 焉,於-허사(155), 者-허사(168), 之-주격조사(181), 且-허사(184), 誰,何,安-의문대명사,의문부사(184), 與-허사(198)</p> |
| D | <p>단원목표에 허자라는 용어사용함. 茫茫大海-첨어(26), 子,所,矣-허자(47), 曰-보어(53), 焉-어조사(75), 乎-의문형 종결사(97), 群-관형어(136), 也-강세 어조사(185), 也-정지어조사,강세어조사-(195)</p> |
| E | <p>단원목표에 허자라는 용어사용함. 不,莫-부정사(35), 가정형-若,如,苟-부사(43), 則-접속사(43), 也,矣-종결사(51), 使,令,遣-동사(59), 之-동사,대명사(71), 誰,何-의문사(75), 乎,也,與-의문종결사(75), 爾-2인칭대명사(79), 勿,無,莫-부정사(79), 子-접미사(83), 활음조현상(119), 而-접속사,대명사(123), 唯,但,獨,特,直-부사(139), 耳,而已-종결사(139), 見,被-조동사(147)</p> |
| F | <p>단원목표에 허자라는 용어사용함. 予-1인칭대명사(52), 與-명사와 명사를 연결(87), 吾-1인칭대명사(87), 而-시간부사어와 동사연결(113), 焉-어조사(146), 而-대명사(154), 之-허자,주격,관형격,목적격(164), 但-한정 부사(165), 使,令,敎,命,遣-사역 보조사(168), 何,安,誰,孰,矣,奈-의문사(192), 耶,乎,與(歟),諸-종결사(192), 與-허자,전치사,접속사,의문종결사(206)</p> |
| G | <p>之-동사,대명사,어조사(주격,관형격,목적격)(25), 之-대명사(27), 子-접미사(27), 於,于,乎-전치사(29), 以-전치사(33), 無+동사:~하지마라.(43), 者-의존명사,어조사(주격,시간)(47), 令-사역조동사(49), 等-접미사(49), 乎-부사</p> |

| | |
|---|---|
| | <p>부정어(51), 使-조동사(53), 子-인칭대명사(55), 已-동사,부사,종결사(55), 인칭대명사의 분류(55), 然-접속사(57), 矣-종결사(57), (비교형)如,不如-형용사(60), (가정형)若,如-부사(60), 嗚呼,噫-감탄사(60), 60쪽 내용은 일부 생략, 而-접속사(65), 當-부사(69), 但,只,直,惟(=維,唯)-한정부사(69), 耳,已,而,已,而已矣-한정종결사(69), 絶-부사(71), 既,已,嘗,曾,方,始,適,將,且-부사(73), 爲-동사(99), 無-형용사,금지사(113), 以,於-전치사(113), 自+명사+서술어(117), 所-의존명사,피동보조사(121), 遣,命,召-사역암사동사(131), 與-동사,접속사,전치사,종결사(139), 者-어조사(143), 是-형용사,지시대명사(145), 於,以,與-전치사(148), 焉-단정종결사,반어부사(157), 哉-어조사(157), 王-명사,동사(157), 處-동사(161), 之-대명사(179), 此,是,茲,其,厥,彼-지시대명사(183), 可(193), 何-의문대명사(199), 誰,孰,何-의문대명사(201), 何-의문부사(201), 以,與,爲,自,從,由-부사구전치사(221), 故-접속어(229), 無-형용사(229), 也-의문종결사(230), 於-전치사(230), 與-동사,접속사,전치사,의문종결사(230), 如-형용사,부사,동사(230), 爲-동사(231), 以-전치사,접속사,명사(231), 已-동사,부사,종결사(230), 而-접속사,이인칭대명사,한정종결사(232), 之-동사,대명사,어기사(232), 既,已,嘗,曾,方,始,適,將,且-시간부사(233)</p> |
| H | <p>단원목표에만 허자라는 용어 사용함. 부사,부정사-(126), 見,被-보조사(166)</p> |
| I | <p>上-동사(29), 之-목적대명사(61), 爾-2인칭대명사(65), 何,安,豈,焉,寧-의문사(69), 乎,哉-종결사(69), 誰,孰,何,安,那,奚-의문사(73), 乎,與,耶-종결사(73), 乎-비교 조사(81), 也,矣,焉-종결사(89), 之-목적격 조사(117), 勿,無,莫,不-금지사(121), 耶-의문종결사(125), 而-접속사(125), 而-접속사(127), 之-관형격조사,주격조사,대명사,목적격조사(137), 若,如,雖,縱-부사(141), 則-접속사(141), 첨어에 대한 설명-(145), 之-대명사(157), 嗚呼,噫-감탄사(161), 子-2인칭대명사(161), 以-어조사(173), 奚-의문부사(185), 也,哉,乎,焉,哉-종결사(185), 嗚呼-감탄사(189), 耶-의문종결사(189), 於,乎-허자(189), 與-동사,접속사,전치사,의문 종결사(193),</p> |
| J | <p>不,無-부정사(13), 何,誰-의문부사,의문대명사(13), 不,非,無,未-부정사(26), 但,惟,獨,只-한정부사(39), 耳,而已-종결사(39), 則-접속사(44), 而-접속사(49), 之-대명사(57), 子-2인칭 대명사(67), 使-사역동사(70), 寧-의문부사(80), 而-접속사(98), 將-부사,동사(106), 爾-2인칭 대명사(111), 能,得,可-가능조동사(151), 然-부사(166), 之-관형격 조사,대명사(166), 君-2인칭대</p> |

| | |
|---|---|
| | 명사(171), 實-부사(181), 攄-2인칭대명사(189), 耶-종결사(189), 凡-발어사(194), 那, 奈, 奚, 胡-의문사(194), 特-부사(212), 王-동사(235), 焉-종결사(235) |
| K | 貴-동사(12), 동사의 관별법-(22), 誰, 何, 安-의문사(36), 한문의 인칭대명사 분류-(36), 於, 以, 之-개사(62), 則, 而-접속사(62), 重-형용사, 부사(68), 家家戶戶 첩어(71), 주로 여기라는 표현을 씀. 之-대명사(152), 奚, 何-의문사(159), 허자일람표-(198~201) |

위 표는 10종 한문교과서와 한문고전교과서에 나오는 품사관련 용어를 총망라한 것이다. A, C, D, H출판사 등이 관련용어를 최소화하여 기술하였고, B, I, J출판사 등은 다소 많이 기술하였고, G출판사는 다른 교과서에 비해 대단히 많이 기술하였다.

위 내용을 통해 혼동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사의 명칭과 품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혼동되고 있다.

| | |
|---------------|-------------------|
| 誰, 何, 安 | (K 36쪽) : 의문사 |
| 也, 矣 | (E 51쪽) : 종결사 |
| 乎 | (D 97쪽) : 의문형 종결사 |
| 斯 | (A 185쪽) : 종결 어조사 |
| 不, 非, 未, 無, 莫 | (C 40쪽) : 부정사 |

주로 영문법에서 쓰는 용어들이 혼용하여 쓰인 경우로 의문사, 종결사, 부정사 등이 마치 품사의 일부분처럼 쓰이고 있다. 품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의문형식의 말, 종결하는 말, 부정하는 말 등으로 풀어서 쓰거나 아예 '사'를 빼는 것이 나을 것 같다. 또, 품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종결, 강세, 의문, 부정 등과 품사를 함께 쓸 때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한 칸을 띄어서 표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동일한 한자의 품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다.

‘之’의 경우

| | | |
|-----------------------|----------------|---------|
| 孝 <u>之</u> 始也 | (B 67쪽) | : 개사 |
| 學者乃世 <u>之</u> 珍 | (G 25쪽) | : 어조사 |
| 民 <u>之</u> 多於隣國 | (G 232쪽) | : 어기사 |
| 同心 <u>之</u> 言 其臭如蘭 | (I 137쪽) | : 관형격조사 |
| 向南漸遠而 南極 <u>之</u> 出地上 | (C 181쪽) | : 주격조사 |
| 鳥 <u>之</u> 將死, 其鳴也哀 | (7차교육과정해설 37쪽) | : 주격어기사 |

‘以’의 경우

| | | |
|-------------------|----------|-------|
| <u>以</u> 羊易之 | (A 81쪽) | : 어조사 |
| <u>以</u> 責人之心 責己 | (B 67쪽) | : 개사 |
| <u>以</u> 子之矛 陷子之盾 | (C 110쪽) | : 허사 |
| <u>以</u> 子之矛 陷子之盾 | (G 33쪽) | : 전치사 |

‘使, 令, 遣’의 경우

| | | |
|-------------------------------|----------|----------|
| 天帝 <u>使</u> 我長百獸 | (E 59쪽) | : 동사 |
| 賢婦 <u>令</u> 夫貴 惡婦 <u>令</u> 夫賤 | (F 168쪽) | : 사역 보조사 |
| 天帝 <u>使</u> 我長百獸 | (G 53쪽) | : 조동사 |
| 遣王 <u>理</u> 之 | (G 131쪽) | : 사역암시동사 |
| <u>令</u> 夫貴 | (B 84쪽) | : 허자 |

‘之’의 경우 실사로 쓰일 때는 ‘대명사, 동사’등으로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나, 허자로 쓰일 때는 똑같은 문법적 상황에서 ‘주격(목적격,관형격)조사’라고도 하며, ‘어조사’, ‘어기사’, ‘개사’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어기사’, ‘어조사’, ‘조사’, ‘개사’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以’도 ‘어조사, 개사, 전치사’가 혼용되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도 허자를 ‘전치사, 접속사, 종결어기사’로 기술하였으나, ‘之’를 ‘주격 어기사’로 분류하며 기타 허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使, 令, 遣’을 ‘동사, 사역 보조사, 조동사, 사역동사, 허자, 사역조동사, 사역암시동사’ 등으로 쓰고 있다. 여기서 ‘허자’로 쓰인 것은 논외로 하고,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들에 대해서는 ‘동사, 보조사, 조동

사’ 등으로 다양하게 쓰고 있다.

이 외에도 ‘者’를 ‘허사, 의존명사, 어조사’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셋째, 허자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허자(=허사)를 문법적인 역할만을 하면서 글자와 글자, 어구와 어구, 글자와 어구를 이어주거나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文의 어기를 적절히 표현하여 그 뜻을 돕는 한자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품사로는 ‘전치사, 접속사, 종결 어기사’ 등을 들고 있다. 6차에서는 ‘語頭, 語中, 語末 어기사’를 다 포함하였는데, 語頭와 語中은 대명사 부사 등과 연관성이 높아 語末의 종결 어기사만 허자로 분류하고 있다. 어쨌든 허자는 이 세부분으로 나뉘는데 일부 교과서는 실사 부분까지도 허자로 잘못 표현한 곳이 많다.

A출판사에는 ‘且(171쪽)’와 ‘夫(231쪽)’가 실사로 쓰이는 데도 허자의 용법이라고 설명하였으며, C출판사에서는 ‘乃(62쪽)’와 ‘與(198쪽)’를 허사의 쓰임으로 설명하면서 ‘너, 너희들’의 2인칭으로 쓰이는 것과 ‘주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까지 허사로 취급하고 있다. B출판사에서는 허자에 대한 개념 정의²²⁾를 하고 있으나 본문내용의 풀이 부분에 ‘허자의 쓰임’부분에서 실사까지 허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처럼 용어가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용어를 극도로 제한하여 사용하지 않은 교과서도 다수가 있다. H출판사에는 ‘허자’라는 용어를 대단원의 목표에 제시만 했을 뿐, 본문 내에는 허자를 포함한 문법용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D출판사와 E출판사도 마찬가지로 문법용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였다.

2. 형식용어

문장의 형식과 관련된 용어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먼저 ‘문장의 형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게 표현되고 있

22) 虛字는 혼자서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문장 속에 쓰여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글자로서, ‘虛詞’라고도 한다.’(56쪽)

다.

F출판사에서는 '문장의 형식'이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한문의 문형(100쪽)', '한문의 형식(80쪽)', '문장의 형식(122쪽)', '문장의 문형(193쪽)' 등 4가지를 쓰고 있어 혼란스럽다. 이것은 교육과정 해설서에 명칭이 나온 대로 '문장의 형식'으로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문장의 형식 분류의 명칭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장의 형식을 논할 때 '--형'으로 서술하느냐, 아니면 '--문'으로 서술하느냐의 문제이다. C출판사에서는 '--문'으로 제시하였고, 나머지 교과서는 모두 '--형'으로 제시하였다. 심지어 F출판사에는 처음에 '--문'으로 쓰다가 소단원 28부터는 다시 '--형'으로 쓰고 있고, J출판사에는 부정문(26쪽)과 부정형을 혼용하여 쓰고 있으며, 의문문(202쪽)과 반어형, 비교형이 함께 기술되기도 하였다. 교육과정 해설서에는 '--형'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국어 문법 교과서에는 '--문'으로 되어 있다. 적절한 합의를 거쳐 통일하여야 할 문제이다.

둘째, '사동'과 '사역'이 혼재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와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사동'이라고 나와 있으나, C출판사와 E, F, G출판사의 4종교과서는 '사역'이라고 되어 있다. 또 J출판사는 '사동'(13쪽)과 '사역'(66,67,220쪽)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국어문법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동'이란 용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²³⁾

3. 짜임과 구조 용어

먼저 한자어의 짜임에 대하여 살펴보자.

E출판사 대단원 I의 단원정리(22쪽)에는 '한자어의 짜임'을 '한자어의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G출판사(17쪽)와 C출판사(115쪽)에도 한자어의 짜임을 '한자어의 구조'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해설서에

23) 김승호, 「학교문법을 위한 문장 분류의 문법적 이해」, 『한문교육연구』, 제17호, 114쪽.

기술된 대로 ‘한자어의 짜임’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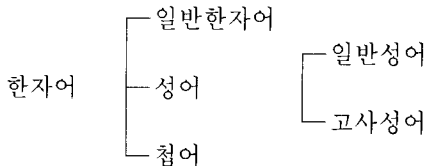
또 B출판사(36쪽)에서는 한자어의 짜임에서 ‘--家和睦’을 ‘주술확장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한자어의 짜임의 하위 분류는 ‘--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구조’라고 파악하여 한자어가 아닌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단 한자어로 파악하였으면 ‘--짜임’으로 분석하고, 문장으로 파악하였으면 ‘--구조’로 명명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자.

I출판사 소단원 26,27에서 문장의 구조를 기존의 주술보, 주술목의 형태로 보지 않고 倒置나 對句의 형태를 ‘문장의 구조’라고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술목, 주술보,...’ 등을 ‘문장의 구조’라고 표현하였다. A출판사(190쪽)에도 對句의 형태를 ‘문장의 구조’로 기술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차라리 ‘문장의 修辭’등으로 표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기타 용어

문법용어를 논하기 이전에 ‘한자어’, ‘한자성어’, ‘성어’ 등에 대한 개념도 혼란스럽다. B출판사에는 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어의 개념을 두 자 이상의 한자가 모여서 숙어처럼 굳어진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성어는 2,3,4,5자 로 짜여지나 4자로 짜여진 성어가 가장 많으며, 4자로 짜여진 성어를 특히 ‘4자성어’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B출판사(36쪽)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짜임’과 ‘구조’라는 말의 사용이다. A출판사 소단원 1에서

는 '한자어의 짜임'이라고 하고, 소단원 2에서는 '성어의 짜임'이라고 기술하였다. 소단원 1에도 2자의 고사성어들이 나오는데 서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또 '문장의 구조'로 쓰다가 '문장의 짜임(77쪽)'으로 쓰기도 하였다. G출판사 소단원 3(16쪽)에서는 '한자어의 구조'로 쓰고 있으며, 이 단원의 마무리학습에서는 '한문의 구조'로 기술하고 있다. 구조라는 용어는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 C출판사(115쪽)에서는 '한자어의 구조'라고 기술하고 있다.

'짜임'이나 '구조'라는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별 차이가 없다.²⁴⁾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한문교과에서는 짜임과 구조가 하나의 새로운 틀로 정착되어 한자의 짜임(=六書), 한자어의 짜임(=병렬관계, 주술관계, …), 문장의 구조(=주술구조, 술목구조, …) 등으로 굳어 졌다. 작은 열개는 '짜임'으로 짜임과 짜임이 모여 '구조'를 이루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다.

문법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요소의 용어는 교육과정해설서에 자세히 정의하였다. 이 개념을 다시 변형하는 것은 다종의 한문교과서가 있다고 볼 때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학교문법이 지닌 통일성이라는 대명제 속에 동일한 용어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고등학교 한문과 학교문법의 내용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았다.

한자의 짜임, 문장의 구조 분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으로 인해 여러 장면에서 학교문법교육이 축소되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6,7차 교육과정 해설서의 비교분석은 이를 확연히 알 수 있게 하였으며, 각 교

24) 국립국어연구원의 앞의 사전에 '짜임(5870쪽)'은 조직이나 구성이라고 되어 있으며, 다시 '조직(5551쪽)'은 짜서 이루거나 엮어서 만듦이라고 되어 있고, '구성(659쪽)'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름. 또는 그 이론 결과를 뜻한다. '구조(672쪽)'는 부분이나 요소가 어떤 전체를 짜 이름. 또는 그렇게 엮어진 열개라고 되어 있다.

과서의 문법내용도 이전에 비해 없어지거나 간단하게 기술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습목표에 문법관련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평가문항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이 아닌 문법을 위한 평가문항이 눈에 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과 학교문법은 한문 문장의 독해라는 한문과의 목표를 위해 반드시 교육되어야 하는 필수학습요소이다. 비록 문법위주의 평가는 지양해야 하나, 문장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문교과는 교육과정 편제단위와 학생들의 학습비중에 비추어 볼 때, 과거식 문리의 터득방법에서 전형이 되는 문장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배울 수 있는 뼈대를 마련하여,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효율적인 문법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적어도 중등학교 한문과 해석의 원리에서 多讀에 의한 문리의 시대는 끝났다. 다양한 형태의 문장을 다양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부족한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구조화된 문법의 적절한 교육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1. 독립과목으로써 한문문법이 없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해설서에 통일된 문법사항을 적절하게 포함시키는 것이다. 7차 교육과정 해설서는 6차 교육과정 해설서의 일부분을 삭제하여 완전한 내용을 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문교육 관련학회 등에 발표된 공인된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간단하게 기술하더라도 통일성과 체계성 있는 용어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겠다.

2. 교과서 편찬자들은 용어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보다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중학교에서 한문과목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

야 한다. 예를 들어 대단원 1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간단한 한자의 짜임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한자어의 짜임이나 문장의 구조에 대한 교수학습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문법교과서를 보면 문법을 가르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J출판사 15쪽에는 한자카드를 이용하여 문장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흥미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좋은 시사점이 된다고 하겠다.

<參考文獻>

7차 고등학교 『한문』 교과서 10종.

7차 고등학교 『한문고전』 교과서 1종.

7차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2002.

7차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 해설-한문Ⅰ, 한문Ⅱ』, 교육부, 1995.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한문』, 교육부, 2001.

김승호, 「학교 문법을 위한 문장 분류의 문법적 이해」, 『한문교육연구』 제1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김승호, 「한문 문형에 대한 연구」, 『한문교육연구』 제9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5.

김용한, 「한문문법서의 연구」, 『한문교육연구』 제1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송병렬, 『새로운 한문 교육의 지평』, 문자향, 2002.

안재철, 『한문과 교재연구 방법론』, 박이정, 2004.

안재철, 「학교 한문문법의 품사 분류와 그 내용에 관한 문제」, 『한문교육연구』 제1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1.

안재철, 「한문교육에 있어서의 문법용어의 제문제」, 『한문교육연구』 제9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5.

이관규, 『학교문법론』, 도서출판 月印, 1999.

임종혜, 「한문교과서 문법용어의 실제」, 『한문교육연구』 제9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5.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編, 『新漢文科教育論』, (사단법인)전통문화연구회,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Matters of 'the Grammar in Chinese Writing' Found in the Present Chinese Writing Textbook for highschool

Heo, Yeon-Ku

This paper is a fundamental study that aims at the unity of school grammar when making up a new curriculum of chinese writing, examining chinese writing and school grammar found in highschool chinese writing textbooks as a whole.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and the necessity of school grammar are discussed first and then the process of studying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matters of grammar found in chinese writing textbook follows. Finally the realities of confusing grammar terms are discussed.

'Chinese writing and school grammar' is a rule for making and explaining chinese writing sentences in conformity of the chinese writing curriculum in the secondary school. Learners can understand structurally and explain sentences by learning the grammar.

The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grammar of 10 kinds of textbooks based on the Curriculum are analyzed and they a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composition of chinese words', 'YookSeo(Six Books)' is written at length as a level of 6th Curriculum.

The fact is that there are five kinds of textbooks which explain 'the composition of chinese words' as a level of the handbook of 7th Curriculum and other five are explained as a level of 6th curriculum.

'The structure of sentence' also swing from 6th Curriculum and 7th. It is described complicatedly as forms of a simple sentence and a complex sentence, while it is also explained simply as a basic structure and an extended structure. One peculiar thing is that some textbooks analyze same sentences differently, making teachers and students confused.

'Form of a sentence' is generally based on 7th Curriculum. However, one kind of textbook follows the standard of 6th curriculum while three kinds of textbooks are written using different terms of forms.

Confusing grammar terms are no exception.

Names of word classes are mixed with terms of characterizing word classes. Also, terms of indicating word classes of a chinese character are varied and the concept of empty words is excessively widely used.

The above analysis draws a conclusion that all parts of the grammar lack unity. Therefore, chinese writing and school grammar are criticized to be neglected or deteriorated.

At this point of time under debating 8th Curriculum of chinese writing, a unified design which is made by academic agreement among scholars about chinese writing and school grammar is needed. Learners' reading skills are expected to improve through grammars with unity and objectivity.

Key word : Chinese writing and school grammar, the actual conditions of grammar teaching, the analysis of grammar in textbooks, the confusion of terms of word classes.

| | |
|-------|--------------|
| 논문접수일 | 2006년 3월 15일 |
| 심사완료일 | 2006년 4월 20일 |